

교회가 아무리 공동체라고 외쳐도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모순이다.



이러한 가정의 교육목표는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부모들이 왜곡된 교육의 목표를 바로 잡는 것과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교회학교가 시작될 수 있는 최대의 관건이다. 각 가정들이 공동체적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시너지 효과로 현실의 높은 벽도 함께 넘어설 수 있다.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를 튼튼히 세우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기독교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더 이상 가정, 교회, 학교는 분리된 독립기관이 아니라 한 공동체이다. 앞에서 제기된 모든 어려움은 교회가 원대 갖고 있던 공동체의 회복, 즉 '가정 같은 교회'와 '학교 같은 교회'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내리신 명령이므로 신분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비전에 지성의 제자도는 외침만으로는 부족하며 더 리와 기쁨, 그리고 영혼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야 이를 수 있습니다. 영혼 모두가 이루어야 할 최우선의 제라 머리와 가슴과 영혼 모두가 이루어야 할 최우선의 제자도는 자녀교육이다. 이 세상을 금진적으로 변혁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앞서서 원안교육의 회복을 시작해야 소망이 있다. 왜곡된 교육으로 인해 황폐화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원안교육을 통해 회복되기를 꿈꾼다.

있던 기독교 학교들이 교회 밖에서 있었기 때문에 세속화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교훈삼아야 한다.

사틴은 왜곡된 교육열을 이용한다

사틴은 한국인의 교육열이 얼마나 강인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국인들의 왜곡된 교육열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어느 부모도 자녀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교육이 제자리를 이탈하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공할만한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험생 가정의 살벌함, 조기 유학생들의 분리, 기러기 아빠의 방황 등에서 보듯이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또한 주일학교의 축소, 중고등부의 무관심, 청년대학부의 몰락 등과 같이 교육이라는 거센 회오리에 교회마저도 휩쓸리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 안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마련이듯이, 제자리를 이탈한 교육으로 인해 파괴된 가정과 교회는 교육이 제자리를 찾으면 회복될 수 있다.

황폐화된 가정과 교회를 원안교육으로 회복하자

대부분이 명문학교의 입학과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교육에 매진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기독교 교육이 출발할 수 없으며,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뿌리내릴 수 없다. 부모가 움켜쥐고 있는 자녀교육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

이지 무엇보다 중요한 자녀교육에서 공동체성을 이루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보이겠다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의 성장이라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각 마디가 연결되어 도음을 받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결국 부모들이 바른 목표를 가져야만 바른 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바른 방안을 실행하려면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교육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이고, 교육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성 회복의 문제이다. 이처럼 기독교 교육은 가정과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일학교(Sunday School)를 교회학교(Church School)

로 회복하자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성경만 교육하는 주일학교는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과목을 통해 전인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육되는 교회학교로 회복되어야 한다. 일주일에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성경공부를 가지고 수십 시간을 철저히 주입하는 인본주의 교육을 이겨낼 재주는 없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사지로 자녀들을 몰아넣고 있는 어떤 요행을 기대하는가? 교육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교육의 방안대로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교육 공동체인 교회학교로 회복되어야 진정한 기독교세계관의 정립이 가능하다.

홀스쿨을 기반으로 한 교회학교가 해결책

데안교육이 활성화되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

아지면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과연 국내에 몇 개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야 기독교 교육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백 개나 되는 기독교 학교가 설립되어 한 학교당 백 명을 수용한다고 해도 기독교 교육의 혜택은 만 명에 불과하다.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교 부지 및 건물과 교사의 확보를 위해서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의 설립은 만만치 않다. 또한 매달 수십만 원의 교육비를 각 학생들이 부담하는데도 대부분의 기독교 대안학교의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교육의 책임을 맡기셨지만 각 홀스쿨링 가정이 교육의 모든 요구들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기독교 대안학교와 홀스쿨의 어려운 점들을 동시에 풀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를 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자녀교육의 책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 교육 공동체를 이루는 성경의 원리까지 충수시키는 방안은 존재하는가? 그 해답은 홀스쿨을 기반으로 한 교회학교이다. 교회에는 이미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실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여러 홀스쿨들이 하나의 교육 공동체를 이루고, 이 교육 공동체를 교회가 지원한다면 기독교 대안학교와 홀스쿨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동시에 해결된다. 교육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학교에서는 학생은 우리들의 자녀이고, 교사는 우리들의 부모이며, 교실은 우리들의 가정이고 교회는 다. 우리 조상들이 품어왔던 서로 도왔듯이 각 가정이 갖고 있는 달랠트와 소유로 서로를 섬김으로써 함께 하는 교육 공동체를 이룬다. 교육의 책임과 운영은 부모들이 맡지만, 교회는 행정력과 장소를 지원해 줄뿐 아니라 신앙의 우산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몇 차례 시도되



서경도 강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임호실 저매와 홀스쿨링을 통해 중고등학교 과정을 미치고 대학 4학년 인 진영, 그리고 현재 홀스쿨링 중인 진성과 함께 가정·교회·학교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비전을 홀스쿨링, 예수촌, 교회, V-School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다.